2017년 3월 14일

보도해명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.

제 목 : 중앙일보 '미국 선수 새겨 넣은 평창 주화' 제하의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

□ 중앙일보는 2017년 3월 14일자 24면 상기 제하의 보도에서 "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주화 디자인이 국내 선수가 아니라 외국선수를 따왔다"고 보도하였습니다.

○ 해당 보도는 또한 인용문을 통해 "한국에 세계적인 피겨선수 김연아가 있는데 왜 미국선수를 기념주화에 넣었으냐"는 비판도 전하고 있습니다.

□ 이번 기념주화 도안은 '한국은행 화폐도안자문위원회'가 김연아 선수를 포함한 다양한 선수들의 동작을 참고하여 디자인한 것으로, 특정선수를 나타낸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문의처 : 발권국 발권정책팀 팀장 김동균
Tel : (02) 759-4590 Fax : (02) 759-4600
공보실 : Tel : (02) 759-4015, 4028

"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http://www.bok.or.kr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"

한국은행
THE BANK OF KOREA